# 출제 의도와 문제 해설

## Ⅰ. 2007 고려대학교 정시논술의 출제 방향

2007학년도 고려대학교 정시 논술시험은 통합논술이 아닌 전통적인 언어논술로 치러지는 마지막 시험이다. 고려대학교는 이미 2007학년도 수시 1 논술시험 및 수시 2 논술시험에서 통합논술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논술출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의 언어논술에서 통합논술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모든 시험을 한꺼번에 바꿀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수험생들의 혼란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시에서만 통합논술을 치르고, 이번 정시에서는 언어논술로 시험을 치르게 된 것이다.

금년도 언어논술의 기본 유형은 예년의 정시논술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하나의 공통주제에 관한 4개의 제시문이 수험생들에게 주어졌으며, 수험생들은 그 제시문들을 정확하게 독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시문들을 읽은 후 공통주제를 발견해 내고, 각 제시문의 연관 관계를 밝힌 후, 공통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도록 하는 논제의 틀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착실하게 준비한 수험생들은 이번 고려대학교 정시문제를 결코 난해한 문제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출제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었다.

첫째, 고등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비추어 무리가 없는 공통주제를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시사적인 문제나 특정분야의 지식을 묻는 주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오히려 독해능력과 사고능력 및 표현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주제와 이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제시문을 선택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제시문의 난이도 및 연관 관계에 많은 신경을 썼다. 내용이나 표현이 난해한 제시문보다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제시문들을 활용하되, 제시문들이 공통주제와 관련하여 각기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셋째, 제시문의 독해와 무관하게 암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술문을 작성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논제에서 연관 관계를 밝히도록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의 논술에서도 제시문의 독해를 통해 공통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경우에만 올바른 논술문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의미에서 고려대학교 정시 논술 시험 문제는 과거의 논술시험과 마찬가지로 i)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제를 찾아내는 능력, ii) 주어진 제시문들의 정확한 논지를 포착해내서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iii) 그리고 그러한 분석과 이해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각을 발전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 Ⅱ. 주제 및 제시문 해설

2007학년도 고려대학교 정시 논술 시험은 '예술의 효용'이라는 공통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문들을 선택하였다. 4개의 제시문은 각기 예술의 다양한 기능 내지 효용을 설명하는 제시문들과 효용주의를 비판하는 제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의 효용이라는 주제는 학생들이 예술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미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충분히 배운 내용들을 전제로 제시문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시각을 정확하게 변별해내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주제로 예술의 효용을 선택한 것이다. 수험생들은 제시문들을 독해하여 그 공통주제 및 연관 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개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제시문 (1)**은 음악이 갖는 정치교화적 효용성에 관한 글로, 다산 정약용의 『악론(樂論)』 두 편 가운데 첫 번째이다. 성인이 음악을 만든 목적은, 위정자는 음악을 들으면서 정사(政事)를 돌아보고 분발하여 잘못된 점을 고치며, 백성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성정을 도야하고 항상 평화로운 마음이 깃들도록 하는 데 있었다. 음악은 사람의 감정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 늘 화평하고 온화한 뜻이 충만하게 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의 위정자들은 밥을 먹을 때나 움직일 때에 항상 악관(樂官)으로 하여금 음악을 연

주하게 하였고, 백성들도 늘 음악을 가까이 하였던 것이며, 음악을 관장하는 신하로 하여금 교육까지 맡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시문 (1)은 음악의 예를 들어서 예술의 효용을 유교적 교화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술은 그 자체로서 즐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밝히고 반성하게 하는 도구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긴 것이다.

**제시문 (2)**는 이형식 교수의 『프루스트의 예술론』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여러 지성들의 말을 인용하여 예술을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관점을 비판하고 있다. 글의 필자는 예술에게 특정 목표나 직접적인 효용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프랑스의 소설가 프루스트의 견해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예술효용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내용으로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효용의 개념이 문제될 수 있다. 효용이라는 개념을 극도로 넓게 이해할 경우에는 예술의 존재의미 자체가 효용이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예술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것은 예술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되는 효용성이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그것이 교화적인 것이건 경제적인 것이건 그밖의 것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제시문 (3)**은 현대 사회에서 예술이 실제로 가지는 경제적 효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예술의 상업화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오늘날 경제적으로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진다. 예술 시장이 커지고, 예술 산업이 발달하면서 예술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예술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은 예술과 직접 관련되는 산업뿐 아니라 산업 분야 전반에서 나타난다. 뉴욕과 같은 도시에서 예술은 경제적 수입과 일자리 마련 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료도 제시되고 있다. 이 제시문은 미카엘 하우스켈러의 『예술이란 무엇인가?』와 유진룡 외가 편집한 『예술경제란 무엇인가?』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출제의도에 맞게 편집한 글이다.

**제시문 (4)**은 넬슨 굿맨의 『예술의 언어들』에서 발췌된 것으로서 예술의 비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술을 구체적인 기능이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견해들도 있지만, 필자는 그러한 견해에 반대하고 있다. 예술활동은 마치 개가 짖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 충동적인 것이라는 견해를 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제시문 (1)와 (3)의 교화적 또는 경제적 효용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그러나 예술을 통한 자기표현 자체를 일종의 효용

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넓은 의미의 효용주의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제시문 (2)와 (4)는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제시문 (4)가 예술의 비실용성을 설명하는 글이라면, 제시문 (2)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술효용주의를 비판하는 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Ⅲ. 평가기준

수험생들의 독해능력과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논술시험에서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에서는 공통주제의 발견, 연관 관계의 분석, 자기 생각의 논술이라는 항목마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있다.

논술의 성격상 특정한 정답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논술문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답이 없다고 해서 오답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특히 유의할 경우에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요구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신 없는 부분이라고 빼놓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답안 전체의 평가를 심각하게 낮추게 될 것이다.

둘째, 요구되는 항목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공통주제와 연관관계, 자신 생각의 논술을 뒤섞어서 서술하는 것보다는 각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고, 논리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상투적인 견해나 정형화된 논증 과정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창의적인 견해나 독창적인 논증 과정을 제시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제시문을 참고하되, 제시문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다시피 해서는 안 된다. 제시문의 내용이 갖는 의미를 이해한 후 이를 자신의 표현으로 정리하여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분량 등 글의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